

족두리에 관한 연구

김 지 연 · 홍 나 영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대학원 ·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부교수

A Study of CHOK-DU-RI(簇頭里)

Ji-Yeon, Kim · Na-Young, Ho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

ABSTRACT

A Study of CHOK-DU-RI(簇頭里)

This is a study of CHOK-DU-RI(簇頭里), a black crown-like headpiece worn by woman on formal occasion in Chosun Dynasty, and has succeeded until now. CHOK-DU-RI was originated by BOKTAK, worn by Mongolian noblewomen and inflowed to the last period of Koryo Dynasty under occupation of Yuan.

The documentary records of O-JU-YON- MUN-CHANG-JON-SAN-KO(五洲衍文長箋散稿) by Lee Kyu-kung, CHUNG-JANG-KWAN-JON-SUH(靑莊館全書) by Lee Tock-mu and KO-SA-TONG(古事通) by Choe Nam-sun verify CHOK-DU-RI is a custom of mongolian fusion that was affected by KO-KO of Yuan and was formed.

KO-KO(故姑) is the same as BOKTAK(БОГТАГ). It is assumed KO-KO is a borrowed name, as its transcription varies. The name was given according to its appearance, which is certified by the record CHANG-CHUN-CHIN-IN-SEO-BANG-YU-RAM-KI(長春眞人西方遊覽記). It says that it can be simply named KO-KO, as its edge is alike a goose or a duck. In addition, KO-KO was called CHOGTAI in case of being added a camel fur, that is JUGDUR. CHOGTAI similarly pronounced with CHOK-DU-RI, which proved CHOK-DU-RI was originated in Mongol.

The shape of BOKTAK is very high and widened toward the top, with the angle getting more pointed and a feather stuck on the side. But its height got lower and its size smaller as it did gradually Koreanized

to a CHOK-DU-RI.

The use of CHOK-DU-RI has been settled since the last period of Chosun Dynasty. It came to stay as a popular custom when King Young-jo and Jong-jo, wanting to do away with the corrupt practice of KA-CHE(加髻), encouraged women at that time to do their hairs with CHOK-DU-RI instead of KA-CHE. It is as follows the classification of CHOK-DU-RI.

First, classified by a use, the group is divided into ceremonial use such as the seven treasures CHOK-DU-RI and jeweled CHOK-DU-RI, a use of sacrificial rites such as plain CHOK-DU-RI, and a use of funeral rites such as white CHOK-DU-RI. Hereby it is assumed that CHOK-DU-RI was used regardless of fortune.

Secondly, it varies by its type of frame. There are SOM(padded) CHOK-DU-RI, HOT(single-layer) CHOK-DU-RI and O-YOM CHOK-DU-RI, a kind of SOM CHOK-DU-RI, formed a base of O-YOM-MO-RI.

The third group by jewelery has WHE-BONG(single-pole) CHOK-DU-RI and TA-BONG(multi-pole) CHOK-DU-RI.

Jeweled CHOK-DU-RI can be still seen being commercially lent and worn by the brides at nuptial ceremonies performed in tradition of fashion and when worn by a bride as she gives her parents to her parents-in-law.

I. 서 론

관모(冠帽)는 단순히 머리를 감싸기 위한 실용적 의미에서 출발하였으나 이후 장식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가 결부되면서 시대에 따른 변천을 겪게 되었다. 이 중 가장 발달된 형태라 할 수 있는 관(冠)은 신분을 표시하고 보다 의례적인 목적을 가진다는 면에서 기타 다른 관모들과 구별된다.

남자의 두식(頭飾)이 주로 관모에 의존하는 것과는 달리, 여자의 두식은 머리모양과 이를 아름답게 꾸미고 돋보이게 하기 위한 수식(首飾)을 중심으로 발달되었다. 내외법이 엄격했던 조선시대에 여자의 쓰개란 주로 의식 때 사용했던 장식적인 관모와 폐면(蔽面)을 위한 외출용 및 방한모에 일관된 것이었고 예장을 위해서는 큰머리(巨頭味), 어머머리(於由味) 등 주로 가체를 이용한 대형 머리모양이 개화기까지 계속 존속되고 있었으므로 여성의 관

(冠)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었다.

조선시대 여자의 관의 대표적인 예로는 적관(翟冠), 화관(花冠), 족두리(簇頭里)가 있다. 이 중 족두리는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혼례·상례·제례 등 여러 예식에 두루 애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통혼례에까지 그 맥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전승되는, 조선시대 여자의 예관인 족두리에 초점을 맞추고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 『궁중발기(宮中撥記)』,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저서, 중국 서적과 외국인의 여행기에 등장하는 몽골 복식에 관한 자료 등 국·내외 문헌과 관련된 사진자료를 참고하여 그 역사와 유형을 고찰하였다.

족두리가 고려시대 몽골에서 전래되어 왔다고는 하지만 실제 관찰할 수 있는 자료는 조선 후기의

문헌과 유물이 대부분이므로 조선 전기의 족두리에 관해서는 살펴보지 못한 점이 연구의 한계이다.

II. 족두리의 역사

1. 족두리의 유래

족두리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고려 말 몽골 복식의 영향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고려 제 23대 고종(高宗) 이후 몽골의 지배를 받게되고 이에 몽골의 풍속이 그대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족두리의 전신으로 알려져 있는, 고고(고고관·고고리)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규경은 저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고려사를 살펴보면 원나라에서 왕비에게 고고리라는 것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곧 관의 이름으로서 세상에 전해진 것이다. 지금의 족두리는 거의 고고리와 그 음이 비슷해 혹시 고고리가 와전되어 족두리가 된 것은 아닐까?”¹⁾

이덕무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를 보면, “부인들의 머리를 땅은 큰 다리와 짧고 좁은 옷은 몽고 유풍이니 거를할 것도 못되거니와 족두(簇兜), 북계(北髻)는 이 또한 무슨 장식인가?”²⁾ 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최남선의 『고사통(古事通)』을 살펴보면, “의식용 복식은 가장 많이 몽고풍을 가미하게 되었다. 지금도 여자의 예장에 쓰이는 족두리는 몽고에

서 유부녀가 외출에 쓰는 모자이고 신부 장식으로 산호주 꾸러미의 도토리락 땡기는 역시 몽고 기혼녀의 두식으로 쓰는 도톨이라 하는 것이며. . . .”³⁾ 라고 나타나 있는바, 족두리의 기원이 원(元)의 고고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 ‘고고’는 12-13세기에 직위있는 몽골 귀부인이 쓸 수 있었던 관모로서 ‘故姑’, ‘姑姑’, ‘固姑’, ‘顧姑’, ‘罽古’, ‘罽罽’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는 것으로 보아 중국 고유의 명칭이 아닌 단순한 차용어임을 알 수 있다. 이전의 학설에 의하면 고고는 몽골어로 ‘케케(keke)’, ‘케쿨(kekül)’이라 하여 단장, 미려, 장식을 나타낸 것이었으나⁴⁾ 중세 몽골어의 케쿨(kekül)에 해당되는 이 케쿨은 사실 남자의 변발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자의 관과 동일시될 수 없다.⁵⁾ 엄연히 현재까지 사용되는 용어인 ‘복타크(БОҒТАҢ)’가 바로 고고이다. 원시대의 풍속을 그린 그림을 보면 현재 우리가 신부복 수식으로 사용하는 족두리의 형태와 그 기본구조에 있어서는 거의 같으며 위가 헤벌어지고 각이 첨예하게 되어 있고 취우(翠羽)를 다같이 착용하고 있었다고 한다.⁶⁾

복타크의 모양과 흡사한 것으로 생각되는 관이 이미 오대(五代)의 회화에 보인다. <그림 1>의 낙타를 끌고 걸어가는 두 여인은 통 높은 모자를 썼는데 이마 앞에 챙이 있으며 양 측면과 등 위로 건을 드리운 것이 복타크와 유사하다. 『장춘진인서방유람기(長春眞人西方遊覽記)』에서는 복타크를 일컬어서, “부인들은 자작나무 껍질로 관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2자 남짓하고 곧잘 검은 베로 그것을 싸매었으며 부유한 이들은 붉은 비단으로 썼다. 그 끝이

1) 이규경, 『五洲衍文長箋散稿』(서울: 동국문화사, 1959), 下, 卷 15, 東國婦女首飾辨證說, p. 467.

2) 이덕무, 『靑莊館全書』, 卷 30, 士小節 第六 婦儀一 服飾.

민족문화추진회 편(1960), 『國譯 靑莊館全書』, VI, p. 124.

3) 『육당 최남선 전집』(서울: 현암사, 1974), 1, p. 149.

4) 김동욱(1973), 『한국복식사연구』(서울: 아세아문화사), p. 67.

5) 이기문(1993), 고려사의 몽고어 단어들에 대한 재검토, 『학술원논문집』 - 인문·사회과학편, 32, pp. 79-80.

6) 유희경(1975), 『한국복식사연구』(서울: 이화여대출판부), p. 213.

거위나 오리 같았으므로 고고라고 이름지었다.”고 하였다. 이 그림의 관을 보면 확실히 거위나 오리의 머리부분을 닮았다. 두 부인은 입마개를 하고 이 관을 써서 바람과 모래를 막고 또한 추위를 막았으며 품이 넓은 포를 입었는데 원대의 복식과 유사하다.⁷⁾ 이는 북타크의 형태가 이미 원 이전의 호족들에게 착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그 기원을 유추해보는 데에 중요한 사료가 된다.



〈그림 1〉 빈기도(番騎圖)
출처: 『中國歷代衣冠』, p. 209.

한편 방령귀(方齡貴)의 『고고고술(罽罽考述)』을 보면 서방의 학자들은 몽골 부녀자들이 남편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1, 2자 높이의 모자를 쓰는데서 북타크의 기원을 찾고 있다 하고 이와 더불어 저자는 북타크에 부착된 장식물의 유사성을 들어 고구려의 '소골(蘇骨)'과 같은 계통이라는 주장⁸⁾을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더욱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북타크를 묘사한 기록을 더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구처기(丘處機)는 『장춘진인서방유람기(長春真人西方遊覽記)』에서 “사람이 만지는 것을 기

피하였고 방을 출입할 때는 반드시 구부렸다.” 하고, 팽대아(彭大雅)는 『흑달사략(黑澗事略)』에서 “고고제는 자작나무가 골격으로 홍전금백(紅綢錦帛)으로 썼다. 정상에는 4-5자의 신 버들가지 또는 철사로 가지를 만든 것을 사용하였다. 푸른색 모전(毛氈)으로 썼으며 그 윗 사람들은 취화(翠花) 또는 5채비단으로 그것을 장식하여 날아 움직이도록 하였고 아랫 사람들은 평털을 사용하였다.” 고 하였다. 양윤부(楊允孚)는 『난경잡영(澗京雜詠)』의 주(注)에서 “무릇 가마를 탈 때는 고고를 썼는데 그 위에 우모(羽毛)의 높이가 수 자나 되어 뽑아서 시녀가 들었다. 쓸 자격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곤란할 때는 조모(粗毛) 직물로 만들어 썼다.” 고 하였다.⁹⁾

또한 『몽골비사(蒙古秘史)』 제 74절에 나타난, 귀부인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하기에 불편한 북타크만은 꼭 붙들어 메고 생활하였다는 문구¹⁰⁾는 당시 북타크가 가지고 있었던 신분적 상징과 위엄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원대의 『집사(集史)』의 세밀화(miniature)에 보이는 북타크는 머리를 덮는 모(帽)부분에 따라 2종류로 대별되며 모정(帽頂)에 꽂는 장식과 모(帽)부분의 장식은 세부적으로 다르다.

모부분이 조바위같이 머리에 꼭 맞는 북타크는 징기스칸의 아내들이 썼고(그림 2), 청대의 풍모(風帽)와 비슷한 각이 진 넓은 북타크는 툴루이의 부인들이 쓰기 시작하여 이후 몽케의 부인들 및 일 칸국의 제 7대 가잔칸의 아버지의 처첩들도 모두 같은 것을 쓰고 있다¹¹⁾ (그림 3).

한편, 원의 세조후(世祖后) 철백이(撒伯爾)의 인물상에 나타난 북타크는 보석과 깃털장식으로 화

7) 『중국복식 5000년』-상, 손경자 (역) (서울: 경춘사, 1995), p. 285.

8) 方齡貴(1989), 罽罽考述, 『內蒙古社會科學』, 5, pp. 59-61.

9) 沈從文(1981), 『中國古代服飾研究』 (香港: 商務印書館), p. 389.

10) 『몽골비사(蒙古秘史)』 제 74절
ukitala bogtala ju hojitala büselejü, ...

11) 김미자(1994), 『集史』에 나타난 몽고복식, 여성연구논총, 9,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p. 94.



〈그림 2〉 징기스칸 일가
출처: 『원색도설 대세계사』, 2, p. 323.



〈그림 4〉 세조후의 북타크
출처: 『故宮圖像選萃』, 34.



〈그림 3〉 몽케의 부인들의 북타크
출처: 『원색도설 대세계사』, 2, p. 319.

려하게 장식한 높은 관을 넓고 붉은 비단으로 이마에 고정시킨 모양으로 땡기를 양옆으로 늘어뜨렸다. 이 땡기는 우리나라 구식 혼례 때 비녀에 감는 앞땡기와 같다¹²⁾ (그림 4).

13세기 몽골에 왔던 외국의 사신들도 한결같이 당시의 부인들은 북타크(БОҢТАҢ)라 불리는, 높이 돌출한 봉오리를 가진 매우 흥미로운 모자를 쓰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선교사였던 카르피니(Plano Carpini)는 이 모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흥미롭게 서술하였다.

그들은 머리 위에 북타크라고 부르는 둥근 형태의 모자를 쓰고 있다. 이 모자는 세로 길이가 한 팔꿈치정도 되는 가느다랗고 긴 나무껍질로 만든다. 맨 윗부분은 네모지게 하고 아랫부분은 넓게 만든다. 봉오리끝에는 아주 훌륭하게 조각된 금은장식이나 짧은 나무막대기를 붙이고 있으며 그 위에다 깃털을 찢러 세워두기도 한다. 이 북타크는 어깨까지 이르는 실렘치(ШИЛЭМЧИ)¹³⁾를 가진 모자 위에 묶어매고 있다. 모자도 방금 말했던 북타크도 부하라(БУХАРА) 목면이나 선홍색 목면 혹은 바그다드 비단으로 외장하고 있다. 부인들은 반드시 북타크 모자를 쓰고 사람들 앞에 나온다. 이 북타크 모자로 처녀들과 부인들을 구별할 수 있다.¹⁴⁾

이 북타크의 정수리에 장식되어 있는 깃털장식은 모두 새털로 간주되고 있으나 고대 몽골부인에게는 낙타의 목부분에 있는 긴 털 즉 '죽도르(jugdur)ЗОГДОРО' (그림 5)'를 붙여 장식하는 관습이 원대까지 이어져 내려왔으리라 추측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몽골비사』 115절에 등장하는 'chogtai eme(傍解에는 固姑 婦人)', 즉 '죽도르를 붙인 북타

12) 김미자(1994). 앞 책, p. 95.

13) 모자의 뒤에 매달아 늘어뜨린 모피나 천

14) 테 바이에르(1994). 『몽골석인상의 연구』 박원길 (역) (서울: 혜안, 1994), p. 71.

크모자를 쓴 부인'으로 해석되는 문구가 있다.¹⁵⁾ 민간에서 전승되는 별칭으로 여겨지는 이 족타이(chogtai)는 발음상으로 우리나라의 족두리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족두리가 몽골 복식의 영향을 받았다는 기존의 설을 한층 더 뒷받침하고 있다.



〈그림 5〉 족도르를 늘어뜨린 낙타

또한 형태에 있어서도 북타크의 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넓직한 상자모양과 유난히 장식화된 정수리에서 족두리와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북타크와 조선 후기의 족두리와는 상호 연계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북타크에서 조선 후기 족두리로의 이행단계에 나타날 수 있는 조선 전기의 자료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관계로 확인할 만한 계제는 못된다.

〈그림 6〉의 조반부인의 머리에는 발(髮)인지 관모인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없어져있다. 이를 관모라고 가정한다면 거대한 북타크가 단순하고 절제된 족두리로 이행하는 중간적인 형태와 유사할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박규수가 『거가잡복고(居家雜服

攷』에서 언급한대로 족두리가 말굽을 머리에 이는 오랑캐의 풍속을 본딴 것이라는 설¹⁶⁾은 당대 족두리의 형태만 보고 소급하여 생각해낸 발상으로 생각된다.



〈그림 6〉 조반부인 상
출처: 『한국의 미』 - 20. 144.

2. 족두리의 사용

족두리는 족두(簇兜) 또는 족관(簇冠)이라 하였고¹⁷⁾ '足頭理', '族頭裹', '族頭伊'라고 표기되기도 하였다.¹⁸⁾ 『임하필기(林下筆記)』에 의하면 "족두리는 광해군(光海君) 중년부터 걸은 현금(玄錦), 안은 자주로 싸고 속을 비게 하여 머리 위에 썼다."¹⁹⁾라고 하였는데, 이는 광해군 중기에 이미 국속화된 족두리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교집록(受教輯錄)』을 살펴보면, 상녀(常女)로서 너울(羅兀), 모단족두리(帽段足頭里)를 착용한 자, 금주옥지환(金珠玉指環)을 사용한 자, 사라릉단

15) 박원길(1996). 『몽골의 문화와 자연지리』 (서울: 두술), p. 88.

16) 박규수. 『居家雜服攷』, 卷 62, 十四

『박규수전집』 (1978). (서울: 아세아문화사), pp. 1408-1409.

1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 '족두리' 항목.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18) 이갑희(1976). 족두리 소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8.

19) 『林下筆記』, 卷 17, 文獻指掌編

『增補文獻備考』 (1908), 卷 80, 禮考 二十七 章服二

『國譯 增補文獻備考』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1), 禮考 4, p. 313.

(紗羅綾緞)을 착용한 자 등을 엄금하는 내용이 나오는 바²⁰⁾, 족두리의 착용대상이 양반 이상의 부녀자들에게 한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족두리가 제도적으로 장려되기 시작한 것은 영·정조시대에 가채(加髻)를 금지하면서부터이다. 가채란 조선 중·후기이래로 성행한 것으로, 이전부터 부녀자의 머리모양의 일종이었던 엷은머리²¹⁾를 더욱 크고 화려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문제시되기는 이미 성종(成宗) 때부터로서 당시 “고계(高髻)의 높이가 1자나 되었고 여기에 중국에서 들어온 사라릉단(紗羅綾緞)을 몸에 감아 사치스러움이 날로 극심하여, 이를 엄형으로도 다스릴 수 없었다”²²⁾ 하였거니와, 이러한 풍조는 다음 대에 가서도 여전하여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에는 이를 “성중(城中) 고계를 좋아하여 사방(四方) 고(高) 일척(一尺), 성중 대수(大首)를 좋아하여 사방 전필백(全匹帛)”이라 표현하고 있다.²³⁾

가채풍속이 극을 이루었던 영·정조시대에는 많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는데, 당시 1계(髻)의 값이 중인(中人) 10가구 재산 이상이었으므로 가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가산을 탕진하는 예가 많았다. 또한 이덕무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를 보면,

“변채(辨髻)는 몽고의 유품이다. 지금 부인들이 비록 마지못해 시속을 따른다 하더라도 사치를 숭상해서는 안된다. 부귀한 집에서는 머리치장에 드는 돈이 무려 7-8만에 이른다. 다리를 널찍하게 서리고 비스듬히 빙빙 돌려서 마치 말이 떨어지는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옹황판(雄黃版), 법랑잡(法琅簪), 진주수(眞珠繻)로 꾸며서 그 무게를 거의 지탱할 수 없게 한다. 그런데도 그 가장은 그것을 금하지 않으므로 부녀들은 더욱 사치스럽게 하여 행여 더 크게 하지 못할까 염려한다. 요즘 어느 한 부자집 며느리가 나이 13세에 다리를 얼마나 높고 무겁게 하였던지, 시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자 갑자기 일어나 서다가 다리에 눌러서 목뼈가 부러졌다. 사치가 능히 사람을 죽였으니 아, 슬프도다.”²⁴⁾ 라고 나타나 있어 그 사치의 정도를 족히 가늠할 수 있다.

이에 영조 32년(1756) 1월 사족(士族) 부녀의 가채를 금하고 족두리를 쓰도록 명하였고²⁵⁾, 33년(1757) 11월에 젊은 사람은 족두리를 쓰고 늙은 사람은 다리를 썼다²⁶⁾는 기록이 있으며, 이어 34년(1758) 1월에는 “엷은머리는 금하고 궁중양식 즉 족두리는 허락하되 그 밖의 양식은 모두 금한다”²⁷⁾ 고 하여 일반 서민들에게도 족두리의 사용이 허용

20) 『受教輯錄』, 卷 5, 法典 禁劑

『朝鮮王朝法典集』 - 2 (서울: 경인문화사, 1972), p. 210.

21) 두발을 땀아 머리 위로 둥글게 엷는 것으로, 『문헌통고(文獻通考)』에서 “신라의 부녀자들은 아름답게 머리를 둘러 감았다”고 기록하고 있듯이 이미 삼국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던 부녀자의 머리모양이었다.

22) 『成宗實錄』 12년 21일 甲子

『國譯 成宗實錄』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2), 17, pp. 106-107.

23) 『燕山君日記』 9년 2월 13일 庚戌

『國譯 燕山君日記』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2), 6, p. 538.

24) 『靑莊館全書』, 卷 30, 士小節 第六 婦儀一 服飾

『國譯 靑莊館全書』, VI, p. 124.

25) 『英祖實錄』 32년 1월 16일 甲申

『國譯 英祖實錄』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2), 26, p. 294.

26) 『英祖實錄』, 33년 11월 1일 己丑

『國譯 英祖實錄』, 27, p. 230.

27) 『英祖實錄』 34년 1월 13일 庚子

『國譯 英祖實錄』, 27, p. 280.

命禁髻髮 許以宮樣簇頭里 凡諸他樣 并嚴禁

되었다.²⁸⁾ 그러나 가체의 대체품으로서 족두리의 사용은 제대로 행해지지 않아서인지 이 논쟁은 정조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고 정조 12년 10월에 가체신금절목(加體申禁節目)²⁹⁾이 제정됨으로써 이에 관한 논의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역시 뿌리깊은 습속은 하루아침에 개혁할 수 없는 것인지 『추관지(秋官志)』를 보면, “전일에는 명부(命婦)들이 입결할 때에는 모두 궁중의 양식을 따랐고 종척(宗戚)들의 집에서도 또한 그러하였으나 지금은 일부(一套)로 혼동되었도다. 옛날 궁중의 양식을 따르게 한 것은 대개 체계였으나 그 모양의 사치와 크기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하여 가체하기에 이르도다. 그러므로 지난번에 가체에 관한 신칙을 하였으나 도리어 부인에게 난감(難堪)한 폐가 되어 마침내 감계(減鬢)하는 효과가 없었으니 이것은 그 근본을 바로 잡지 못하였기 때문이다.”³⁰⁾라고 설명하고 있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체계를 대신하는 쪽머리제는 순조(純祖) 중엽에 가서야 이루어진 듯한데, 이에 대해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는, “국조 중엽 정조 신해(15년) 이전까지는 대체(大髻)가 있어 이것을 가발이라고 하였으며, 자기 머리와 합쳐 땡지 않고 긴 다래를 땡아 머리를 한 번 두를 만큼 만들어 엮고 비녀를 꽂았다. 정조 신해 이후 가발을 금하고 북계(北髻) 속명 낭자라고 하는 것을 쓰게 하였는데, 이것은 머리를 땡아 뇌후(腦後)에 둥글게 서린 다음 비녀를 꽂고 족두리를 쓰게 한 것이다. . . 순조 중엽 후로 전국의 부녀가 다래로 머리 엮는 법을 없애고 자기 두발로 뇌후에 쪽을 찢 다음 작은 비녀를 꽂았는데 이것이 그대로 풍속이 되었다. 경인년(순

조 30년)에 이것을 금하고 다시 머리를 엮게 한 일이 있었으나 실시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것이 우리나라 부녀 머리모양의 연혁(沿革)이다.”³¹⁾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엮은머리에서 쪽머리로 이행되어 간 경위를 짐작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쪽진머리에 가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림 7, 8, 9〉는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³²⁾ 반차도(班次圖)중 보행내인(步行內人)의 모습으로서 〈그림 7〉에서 붉고 넓적한 사각의 판형(板形)을 머리에 이고 걸어가는데 모습과 달리 〈그림 8〉에서는 족두리를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림 9〉에서는 크게 엮은머리를 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7〉에 나타난 것은 어떤 종류의 쓰개인지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족두리의 사용을 권장하기 시작한 영·정조 때에는 일단 엄격한 궁중법도에 따라 내인들이 족두리를 착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국말로 가면서 쪽머리제도가 일반화되었던 와중에도 큰 의식 때에는 여전히 가체가 이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현종명성후
가례도감의궤 반차도 (1651)

〈그림 8〉에서 나타나는 홍색 족두리는 북타크와 연결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 홍색 족두리는 〈그림 10〉에도 보이는데 회혼(回婚)을 치르는 노부부를 둘러싼 집안 부녀자들이 착용하고 있다. 이는 장숙환씨 소장 유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그림 15).

28) 조효순(1992), 『한국복식풍속사연구』 (서울: 일지사), p. 438.

29) 『正祖實錄』 12년 10월 3일 辛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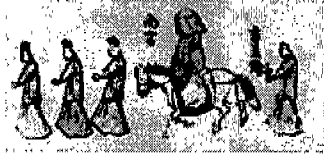
『國譯 正祖實錄』, 13, pp. 190-191.

30) 『秋官志』, 제 4편, 掌禁部 申章 奢侈

31) 『五洲衍文長箋散稿』, 卷 15, 東國婦女首飾辨證說

32) 『顯宗明聖后 嘉禮都監儀軌』 (1651)

『英祖貞純后 嘉禮都監儀軌』 (17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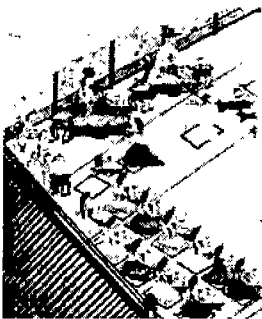
〈그림 8〉 영조정순후
가례도감의례 반차도 (1759)



〈그림 9〉 철종철인후
가례도감의례 반차도 (1851)



〈그림 10〉 작자미상,
평생도팔곡병(平生圖八曲屏)
출처: 『고회화명품도록』, p. 206.



〈그림 11〉 작자미상,
회혼례도(回婚禮圖)
출처: 『한국의 미』 -19, 84.

〈그림 11〉의 회혼례도에서 노부인이 족두리를 썼는데, 〈그림 8, 10〉의 족두리보다 크기가 큰 편이며 수식은 없다. 노부인을 제외한 다른 부녀자들은 머리에 꽃을 꽂고 있는데 남자들도 역시 갓에 꽃을 꽂고 있어 당시 삽화(插花)의 풍속이 남녀 모두에게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족두리는 신분을 막론하고 일반인들의 생활에 깊숙히 침투됨으로써 그 종류도 다양해졌는데 특히 당쟁으로 물들었던 시대에서 노론(老論)과 소론(少論)을 구별할 수 있는 표시이기도 하였다. 곧 노론가(老論家)의 부녀자들은 솜족두리를 썼고 소론가의 부녀자들은 홑족두리를 쓰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다.³³⁾

이와 같이 몽골의 복타크에서 유래된 이래로 점차 국속화된 족두리는 조선 후기 영·정조대의 가체금지령 이후로 양반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그 사용이 일반화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전통혼례를 치를 때 원삼·활옷과 함께 착용된다.

III. 족두리의 유형

족두리는 길흉을 막론한 의례적인 자리에 두루 사용되었기 때문에 예식의 성격에 따라 그 종류를 달리하였는데, 본 장에서는 단순히 민족두리, 꾸민 족두리, 어염족두리 등으로 구분하는 기존의 방식을 떠나 용도에 따라, 틀의 형태에 따라, 꾸밈의 방식에 따라 족두리의 유형을 세분화 하여 보았다.

1. 용도에 의한 분류

1) 혼례용(婚禮用)

혼례용 족두리는 걸면을 검은 비단으로 짠 후 옥판(玉板)을 받치고 산호, 밀화, 진주 등의 보석으로 치장한 꾸민 족두리 혹은 칠보족두리를 일컫는다. 유물과 착장사진을 살펴보면 앞술이 달려있는 것과 달려 있지 않은 것이 공존하는데, 궁중용 족두리는

33) 조효순(1992). 앞 책, pp. 339-440.

대부분 앞술장식이 없는 반면에 민간용은 두가지 양식이 모두 존재한다. 이에 오늘날의, 혼례용 족두리에 거의 대부분 앞술을 늘어뜨리는 습속이 이전에는 그다지 엄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조 말엽 『궁중발기(宮中撥記)』³⁴⁾중 임오정월(壬午正月) 가례시 간택처자(揀擇處子) 의차(衣次) 중 삼간택시(三揀擇時) 부인 궁(宮)에 나갈적에 입은 옷의 발기 가운데 칠보족두리가 있으며 임오동궁가례(壬午東宮嘉禮) 재간택후(再揀擇後)에 보내는 빈궁의대발기(嬪宮衣櫛撥記) 중에는 꾸민 족두리가 있다. 또한 세자빈가례와 왕자군길례(王子君吉禮)에서 왕비나 세자빈은 칠보족두리, 왕자부인이나 공·옹주는 목단색 공단족두리를 썼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한말까지 여유있는 집안에서는 혼례시 큰머리를 하는 습속(習俗)이 여전히 남아있었는데, 큰머리를 한 경우에는 어엽족두리를 착용하였고 가산(家産)이 풍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모조보석이나 유리를 가지고 반가의 것을 모방하여 만들어 썼다.

한편, 독특한 지방색을 드러내는 개성 족두리는 밀화장식이 유달리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2) 상례·제례용 (喪禮·祭禮用)

상례·제례용 족두리는 수식이 일체 제외되고 천으로만 감싼 족두리를 사용하는데, 상례에는 흰색을, 제례에는 흑색을 착용하였다. 상례에 흰 족두리를 쓸 때에는 머리에 한지로 만든 흰 땡기를 드리고 나무비녀를 꽂았는데 이것은 주로 반가의 경우였고 보통은 흰 족두리 대신에 또아리처럼 등글게 튼 수길(首經)을 머리에 얹었다.³⁵⁾ 제례에는 흑색 땡기에 흑각잠(黑角簪)을 꽂고 옥색 또는 천담색(淺淡

色) 치마 저고리를 입고 족두리를 썼다.³⁶⁾ 제례용 족두리는 꾸민족두리, 칠보족두리의 몸체가 되는 것으로³⁷⁾ 이들과 구별되어 보통 민족두리라고 하는 것인데 과부가 예장할 때 쓰기도 하였다.

한편, 순화궁첩초(順和宮帖草)의 국기복식(國忌服飾)을 보면 “ 정조대왕 녹월 이십팔일 흐르 素, 花紡紬복. 칠일부터 분만 바르고 뽕족두리, 스양의는 즈덕 금단기 石雄黃 매고 冠禮 후는 玻璃 댕 竹簪 쪽고 . . . ” 라고 나와있어 국기일에 근신적인 의미로 민족두리를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다.³⁸⁾

〈그림 12〉의 흰 족두리는 솜을 넣지 않고 각이 져 있는 형태로 그 착용모습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상제임에도 불구하고 영왕비는 흰 족두리, 이 구씨의 부인이었던 출리아는 흑색의 민족두리를 착용한 이색적인 모습도 보이므로 상례용과 제례용의 명확한 구분에 있어서 혼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림 12〉 순종비 윤비의 상례
출처: 『衣』, p. 129.

3) 기타

족두리는 혼례·상례·제례같은 대례(大禮)가 꼭 아니더라도 궁중에서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당의(唐衣)와 함께 사용되거나,

34) 『궁중발기』, 壬午東宮嘉禮, 揀擇妻子衣次·嬪宮衣櫛撥記

김용숙(1963), 궁중발기연구, 『향토서울』, 18, pp. 98-111. 재인용

35) 조효순(1992), 앞 책, p. 326.

36) 유송옥, 사례 복식(四禮 服飾), 『한국의 복식』 (서울: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p. 251.

37) 이갑희(1978), 앞 책, p. 36.

38) 김용숙(1987),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 (서울: 일지사), pp. 297-299.

반가 부녀자들의 성장용(盛裝用)으로 착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문헌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구전하는 바로는 계례(契禮)에 원삼이나 활옷과 함께 착용하였다고 한다.

2. 틀의 형태에 의한 분류

족두리에서 '틀'이란 수식이 가미되지 않고 검은 비단으로만 싸여 있는 몸체로서 즉 민족두리를 말하는데, 보통 솜을 넣거나 뼈대를 배접(褙接)하여 모양을 만든다.

서유구(徐有渠)의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³⁹⁾ 섬용지(瞻用志)에 있는 여복 족두리조(女服 簇頭伊條)에 나타난 제양(製樣)을 살펴보면, “족두리를 흑색 비단에 솜을 싸서 만들었는데 봄과 여름철에는 풀먹인 종이로 만들어 검은 비단으로 썼다.” 라고 하여 겨울용과 봄·여름용 족두리가 다름을 시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계절을 가려서 사용하였기보다 그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 당쟁이 치열했던 시대에서는 이 족두리틀의 형태가 노론가의 부녀자와 소론가의 부녀자를 구별할 수 있는 표시이기도 하였다.

이밖에, 관모의 형태는 아니지만 솜을 두어 만든 여염족두리도 있다.

1) 솜족두리

솜을 가득 채워서 모양을 만들고 겉을 비단으로 싼 모양으로 노론가의 부녀자들이 착용하였기 때문에 일명 노론족두리라고도 한다(그림 13).

『규합총서(閩閩叢書)』에는, “모단 오촌이나 반필(종이) 혼자하나 뜨는대로 뜨고 소음낭반이면 되느니라.”⁴⁰⁾ 라고 하여 솜족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단 다섯치와 솜 한냥 반이 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검은 비단 6쪽을 이어 꿰매고 안에 솜을 넣은 후 그

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상부·중앙·측면에 칠보·밀화·옥 등을 장식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림 13〉 솜족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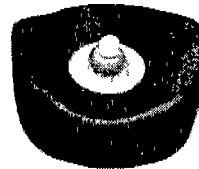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출처: 『한국복식 2천년』, p. 43.

2) 홑족두리

종이로 뼈대를 만들고 배접한 후 비단으로 싼 모양으로 소론가의 부녀자들이 착용하였기 때문에 일명 소론족두리라고 하고 각이 진 모양때문에 각족두리라고도 일컫는다. 보통 상부 중앙에만 옥판, 밀화, 진주 등으로 장식을 하므로 솜족두리에 비해 단출하다(그림 14). 서민용 족두리 중에는 각지지 않은 둥글한 형태로서 모조보석, 유리, 구슬 등을 가지고 아기자기하게 꾸민 것도 있다.

〈그림 15〉는 홍색 족두리로서 색과 꾸밈에 있어서 특히 주목된다. 앞술이 늘어진 것으로 보아 혼례용인데 드물게도 홍색이고 꾸밈의 방식도 다른 홑족두리보다 매우 화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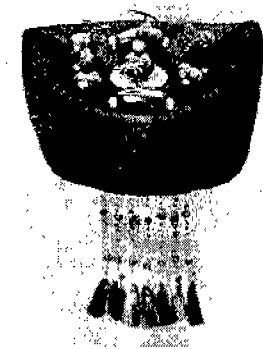
〈그림 14〉 홑족두리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출처: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족두리조 p. 665.

39) 서울대학교 고전간행회 편(1967). 『林園十六志』, 2, p. 536.

40) 빙허각 이씨(1939). 『閩閩叢書』 (서울: 보진재, 1980). p. 131.



〈그림 15〉 홍색 흘죽두리
장숙환 소장

출처: 『조선시대의 관모』, p. 51.

3) 어염족두리

어염족두리는 검정 비단 안에 솜을 두어 허리를 실끈으로 잘록하게 조여 만든 형태로서 솜족두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만 관모의 형태는 아니다. 대체시 꾸미는 어머머리의 밀받침용으로서 어염족두리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다. 『가채절금신목』에서 “어유미(於幽昧)와 거두미(巨頭昧)는 명부(命婦)들이 향시 착용하는 것이나, 일반 백성들 집에서 혼인할 때 착용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 라고 한 것을 보면, 가채를 거두고 족두리를 권장하는 와중에도 혼례에는 신분을 막론하고 크게 딸아올린 머리가 허용되었고 이에 어염족두리도 특별한 날만큼은 예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꾸미는 방식에 의한 분류

1) 외봉(一峯) 족두리

외봉족두리란 모정의 중앙에 패물을 연달아 끼운 봉이 하나만 있는 족두리를 말한다(그림 14). 솜족두리와 흘죽두리에 모두 사용되는 방식으로 봉은 주로 화문옥판(花紋玉板)을 위에 호박, 비취, 산호, 진주 등을 꿰어 만드는데 중앙봉의 앞뒤에 진주가 달린 석용황을 장식하기도 한다. 측면은 옥이나 금박으로 壽·福·壽·康 등의 문자문을 부착하거나

나비, 매미, 천도 등을 조각하여 붙이기도 하였다.

2) 다봉(多峯) 족두리

다봉족두리란 모정에 보석을 연달아 끼운 봉이 여러개 있는 족두리를 말한다(그림 15). 보통 중앙에 가장 큰 봉을 세우고 그것을 중심으로 4, 6개의 봉이 둘러싼 오봉, 칠봉족두리가 일반적이고 솜족두리가 대부분이다. 중앙의 봉에는 반드시 화문이 조각된 옥판을 밀받침으로 하고 나머지 봉은 밋밋한 옥판이나 화문이 조각된 모조품을 사용하는데 주변봉에는 밀받침이 없는 경우도 있다.

IV. 결론

족두리는 고려말 원의 지배하에서 그들의 풍속일체를 받아들일 때 고려왕비가 원으로부터 사여받았다는 몽골 귀부인의 예관인 ‘복타크(BOГТАГ)’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복타크는 12-13세기 몽골의 지체높은 귀부인들의 상징적인 관모로서, 중국의 문헌들과 고려사에는 ‘고고(고고관, 고고리)’라고 하여 ‘故姑’, ‘姑姑’, ‘固姑’, ‘顧姑’, ‘罽古’, ‘罽罽’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는데 이는 어떤 뜻이 없는 가차음(假借音)이다. 복타크는 보통 자작나무로 틀을 높이 만들어 선홍색의 페르시아산 비단으로 싼 후 여러 가지 보옥(寶玉)과 깃털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장춘진인서망유람기(長春眞人西方遊覽記)』를 보면 “그 끝이 거위나 오리처럼 생겼으므로 고고라 이름지었다.” 고 하였으니, 이를 보면 고고라는 용어는 중국인들이 복타크라는 발음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그 외관을 보고 명명한 것이라 추측된다. 복타크에는 몽골의 오래된 옛 관습에 따라 낙타털, 즉 족도르를 붙이기도 하였는데 여기서 족도르를 붙인 모자를 지칭하는 ‘족타이’가 족두리와 발음상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족두리가 몽골복식의 영향으로 출현하였다는 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복타크에서 유래된 족두리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점차 국속화되어 크기가 작아지고 위아래가 뭉뚱해지면서 주로 궁중양식으로만 쓰이게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성행한 것은 조선 후기부터이다. 영·정 조대에 부녀자들의 가체에 들이는 비용과 그 폐단이 극에 이르게 되자 가체를 금하고 족두리로 대체하라는 명이 내려짐으로써 양반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족두리의 사용이 일반화되었다.

족두리는 보통 검은 검은 비단으로 안은 홍색으로 하였는데 조선 후기의 회화자료를 보면 홍색 족두리를 쓰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 바 유난히 정수리를 장식하는 습속과 더불어 복타크의 유속으로 짐작된다.

족두리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 용도에 따라서 혼례용, 상·제례용, 기타로 분류하였다. 혼례용으로는 옥판, 밀화, 비취, 산호, 진주, 석용황 등 각종 패물을 엮어 화려하게 장식한 칠보족두리, 꾸민 족두리가 있고 상례용으로는 장식을 하지 않고 납작하고 모가 난 흰 족두리가 있으며 제례용으로는 검은 비단으로 싸주기만 한 민족두리가 있다. 또한 기타의 예로서는 계례를 치를 때, 그리고 예식을 치르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가족이나 주변 친지인 경우, 혹은 굳이 큰 예식이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예를 갖추는 경우에 당의나 치마저고리와 더불어 족두리를 쓰는 경우가 있다.

둘째, 틀의 형태에 따라 솜족두리, 홉족두리, 어엽족두리로 분류하였다. 솜족두리와 솜을 단단하게 두어 모양을 만든 족두리로서 주로 노론들이 썼다 하여 속칭 노론족두리라 하는 것이고 홉족두리는 솜을 두지 않고 배접하여 모양을 만든 족두리로서 주로 소론들이 썼다 하여 소론족두리라 하는 것이다. 어엽족두리는 어여머리나 띠구지머리의 밑받침용으로서 솜족두리와 홉족두리같이 머리 위에 쓰는 관모의 형태는 아니지만 명칭은 족두리라 하였다.

셋째, 꾸밈의 방식에 따라 외봉족두리, 다봉족두리로 분류하였다. 봉이란 보옥을 연달아 끼워 족두

리의 상판에 세운 것으로 모정에 하나만 세운 것이 외봉족두리이고 여러개 세운 것이 다봉족두리이다. 외봉족두리는 솜족두리, 홉족두리에 모두 나타나는 꾸밈의 방식이지만 다봉족두리는 주로 솜족두리에서 많이 나타난다. 다봉족두리 중에는 봉이 5개인 오봉족두리가 일반적이고 이것은 현대의 혼례용 족두리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제양이다.

참고문헌

1. 國內書

- 『嘉禮都監儀軌』
- 『國譯 嘉禮都監儀軌(英祖 貞純王后)』, 박소동(역). 서울: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97.
- 『國譯 燕山君日記』, 6.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5.
- 『國譯 成宗實錄』, 17.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5.
- 『國譯 英祖實錄』, 26·27.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2.
- 『國譯 正祖實錄』, 4·13.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2.
- 『國譯 增補文獻備考』,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1.
- 『宮中撥記』
- 『殯殿都監儀軌』
- 『受教輯錄』, 『조선왕조법전집』, 2. 서울: 경인문화사, 1972.
- 『譯註 高麗史』. 부산: 동아대학교 출판부, 1971.
- 『林下筆記』
- 『秋官志』, 법제자료집, 76. 서울: 법제처, 1975.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육당전집편찬위원회(편)(1974). 『육당 최남선 전집』, 1. 한국사: 통사론. 서울: 현암사.
- 고미연(1993). 한국여성의 두식에 관한 연구 -

-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고복남(1986). 『한국전통복식사연구』. 서울: 일조각.
 - 『고회화명품도록』. 서울: 고려대학교 박물관, 1989.
 - 금기숙(1994). 『조선복식미술』. 서울: 열화당.
 - 김동욱(1973).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 김미자(1994). 『集史』에 나타난 몽고복식, 『여성연구논총』, 9,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pp. 83-108.
 - 김영숙(1987). 『조선조말기왕실복식』.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 _____(1998). 『한국복식문화사전』. 서울: 미술문화.
 - 김용숙(1963). 궁중발기연구, 『향토서울』, 18, pp. 98-111.
 - _____(1987). 『조선조궁중풍속 연구』. 서울: 일지사.
 - _____(1989). 『한국여속고』, 서울: 민음사.
 - 김형수(편)(1995). 『만주어, 몽고어 비교어휘사전』. 서울: 형설출판사.
 - 데 바이에르(1991). 『몽골석인상의 연구』, 박원길(역). 서울: 혜안, 1994.
 - D. 마이달, N. 슈르템(공저), 『몽고문화사』, 김구산(역). 서울: 동문선, 1991.
 - 마르코 플로, 『동방견문록』, 최호(역). 서울: 홍산문화사, 1994.
 - 『몽골비사』, 유원수(역주). 서울: 혜안, 1994.
 - 『민속도록』. 아산: 온양민속박물관, 1983.
 - 『민족의 사진첩』 - 민족의 전통 멋, 예술 그리고 풍속. 서울: 서문당, 1995.
 - 『박규수전집』.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8.
 - 박상규(편)(1986). 『몽고풍속도록』, 우랄알타이인문총서, 1, 서울: 아세아문화사.
 - 박원길(1996). 『몽골의 문화와 자연지리』. 서울: 두산.
 - 『복식명품도록』. 서울: 고려대학교 박물관, 1990.
 - 빙허각 이씨(1939). 『閨閣叢書』. 서울: 보진재, 1980.
 - V. A. 라자노프스키. 『몽골의 관습과 법』, 서병국(역). 서울: 혜안, 1994.
 - 『사진으로보는 조선시대』 - 생활과 풍속. 서울: 서문당, 1986.
 -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 속 생활과 풍속. 서울: 서문당, 1988.
 - 서울대학교 고전간행회 (편)(1967). 『林園十六志』, 2.
 - 석주선(1971). 『한국복식사』. 서울: 보진재.
 - _____(1982). 『속 한국복식사』. 서울: 고려서적주식회사.
 - _____(1985). 『衣』.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 _____(1993). 『관모와 수식』.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 손경자·김영숙(공편)(1982). 『한국복식사자료 선집』, I II III. 서울: 교문사.
 - 손경자. 한국·몽고복식의 상관성 연구(II). 『복식』, 16, 1991, 5. pp. 15-42.
 - _____, 몽고족의 두식고. 『복식』, 17, 1991, 11. pp. 247-248.
 - 『원색도설 대세계사』, 2, 아시아국가의 전개. 서울: 태극출판사, 1992.
 - 유송옥(1991). 『조선왕조궁중복식의계』. 서울: 수학사.
 - 유희경(1975).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_____(1995).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 이감희(1976). 족두리 소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규경. 『五洲衍文長箋散稿』, 下. 서울: 동국문

- 화사, 1959.
- 이기문(1993). 고려사의 몽고어 단어들에 대한 재검토. 『학술원논문집』 - 인문·사회과학편, 32, 서울: 대한민국학술원, pp. 55-83.
 - 이능화(1927). 『朝鮮女俗考』, 김상억(편). 서울: 동문선, 1990.
 - 이덕무. 『國譯 靑莊館全書』, VI,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60.
 - 이성미·강신항·유송옥(1994). 『장서각소장 가례도감의궤』, 성남: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 이수광. 『芝峰類說』, 남면성(역). 서울: 을유문화사, 1994.
 - 이순홍(1992). 『한국전통혼인고』. 서울: 학연문화사.
 - 이재. 『國譯 四禮便覽』, 우봉이씨대중회(역). 서울: 이화문화출판사, 1992.
 - 이태호(1996). 『풍속화』, 2, 빛깔있는 책들. 서울: 대원사.
 - 임명미(1992). 『몽고복식』. 서울: 경춘사.
 - 장명하(1995). 『알타이·우랄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다시 열린 비단길』. 서울: 대륙연구소출판부.
 - 전완길(1987). 『한국화장문화사』. 서울: 열화당.
 - 『조선시대의 관모』, 온양민속박물관 특별전 도록, 2, 1988.
 - 조수연(1994). 몽고족 모자에 관한 연구. 서울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효순(1992). 『한국복식풍속사연구』. 서울: 일지사.
 - _____(1994). 『복식』, 빛깔있는 책들, 7. 서울: 대원사.
 - 『중국복식 5000년』 -상, 손경자(역). 서울: 경춘사, 1995.
 - 『한국의 미』, 19-풍속화. 서울: 중앙일보사, 1993.
 - 『한국의 미』, 20-인물화. 서울: 중앙일보사, 1993.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 『한국복식 2천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1995.
 - 『한국의 복식』, 서울: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 『한·몽 교류천년』. 서울: 한·몽골교류협회, 1993.
 - 홍나영(1995). 『여성쓰개의 역사』. 서울: 학연문화사.
 - 華梅(1989). 『중국복식사』, 박성실·이수웅(공역). 서울: 경춘사, 1992.
- ## 2. 國外書
- 加藤定子(1983). ノイン・ウラ古墳發見の冠帽と鉢巻形防寒帽について, 『季刊東西交渉』, 5, pp. 30-38.
 - 『故宮圖像選萃』(1993). 國立故宮博物館.
 - 方齡貴(1989). 罽罽考述, 『內蒙古社會科學』, 5, pp. 33-61.
 - 吳山(注編)(1988). 『中國工藝美術大事典』. 南京: 江蘇美術出版社.
 - 王國維(編)(1962). 『蒙古史料四種』. 台北: 正中書局印行.
 - 王宇清(1975). 『中國服飾史綱』. 臺北: 中華大典編印會.
 - 沈從文(1981). 『中國古代服飾研究』. 香港: 商務印書館.
 - 周錫保(1983). 『中國古代服飾史』. 上海: 中國戲劇出版社.
 - 朱汎·高春明(1988). 『中國歷代婦女壯飾』. 香港: 三聯書店有限公司.
 - 中國歷代藝術編輯委員會(編)(1995). 『中國歷代藝術』, 繪畫篇(上). 台灣: 大英百科 股份有限公司.
 - 陳永志(1997). 羊群廟元代石雕人像裝飾考, 『內蒙古大學學報』, 5, pp. 19-24.

- Christopher Dawson(1955). The Mongol Mission. London: Sheed&Ward.
- Charles Bawden(1997). Mongolian-English dictionary. London : New York : K. Paul International : Distributed by Columbia University Press.
- Henny Harald Hansen(1950). Mongol Costume. Copenhagen: Bianco Lunos Bogtrykkeri.
- Martha Boyer(1952). Mongol Jewellery. Copenhagen: Bianco Lunos Bogtrykkeri.
- N. Tsultem(1987). Mongolian Art and Craft. Ulan-Bator: State Publishing House.
- Sechin Jagchid · Paul Hyer(1979). Mongolia's Culture and Society.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 Till Gottheiner(1960). Mongolian journey. London : Batchworth Press.